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두 번째 파트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 보고서’ 최종 검토 착수

2022.02.14.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2월14일부터 25일까지 제2실무그룹 온라인 영상회의를 열어 이를 통해 기념비적 보고서인 ‘영향·적응·취약성 보고서’의 최종 검토에 착수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이 보고서는 자연, 사회 및 경제 과학을 통합하여 다루고 있는데, 사회적 정의의 역할을 비롯하여 토착지식 및 로컬지식과 같은 여러 형태의 지식을 중점 조명한다. 이 외에도 기후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하고 즉각적인 행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및 지역 차원의 더 많은 지식은 물론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간의 연결고리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IPCC의 제2실무그룹이 준비한 이 보고서는 2021년 8월에 제1실무그룹이 내놓은 6차 보고서의 첫 번째 파트에 이어서 발표되는 것으로, 당시 파트 1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WMO 사무총장 페터리 탈라스는 “이전 보고서들을 보면 물리 과학계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 왔는지를 봐왔으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일 벌어질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빙하가 녹는 것과 해수면의 끊임없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까요.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상은 앞서 추정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이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에서 그러한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탈라스 총장은 말한다.

탈라스 총장은 이 같은 현상을 스포츠 경기에 적용하여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곳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높은 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핑 물질을 투여한다면, 그들의 기량이 효과적으로 상승하여 더 큰 성과를 내겠죠. 우리가 대기에 대해 자행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대기에 도핑 물질을 투여해온 것이죠. 우리가 자행한 도핑 행위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었고, 우리가 누릴대로 누린 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재해는 이미 늘었고, 인적, 경제적 피해와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라고 그는 말했다.



“WMO는 작년에 지난 50년 동안의 재해통계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45억 인구가 지난 20년 동안 기상 관련 주요 재해를 경험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조기경보서비스가 개선된 덕분에 사상자는 감소했지만, 경제적 손실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탈라스 총장의 말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잉거 안데슨(Inger Andersen)은 “IPCC는 기후 행동을 북돋는 역할을 합니다. 그 행동이 일어나려면 우선적으로 과학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기후 영향이 커지는 속도는 기후에 적응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는 IPCC 제2실무그룹 회의는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인 Bettina Stark-Watzinger는 개회식에서 “IPCC 보고서는 우리의 금본위제(gold standard)라고나 할까요... 우리 모두는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합니다.”라고 말했다.

승인 플레너리(전체 회의)는 모든 IPCC 보고서에 대해 엄격히 거쳐야 과정으로서 초안 작성과 검토가 이뤄지는 최고 단계이다. 보고서의 1차 초안에 대해 전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로부터 16,000개 이상의 의견이 달렸고, 전체 보고서의 2차 초안과 정책입안자용 요약보고서에 대해서는 4만여 개의 전문가 및 정부 코멘트가 제공되었다. 정책입안자용 최종 요약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부들로부터 약 5,700개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 보고서는 3만4천여 개의 과학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실고

있다.

IPCC 이회성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이 회의는 ‘영향·적응·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포함한 과학 분야 전반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엄격하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정부 대표들과 과학자들은 함께 정책 입안자 용 요약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자세히 검토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굳건하고 테스트를 거친 강력한 요약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실리는 새로운 발견점들은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라고 말했다.

IPCC 제3실무그룹 보고서와 IPCC 최종 종합보고서는 각각 2022년 4월 초와 9월 초에 완료될 예정이다.

---